



관세청, '칵테일 마약' 국내 최초 유통망 조직 일망타진

-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신종 마약밀수·유통망 적발
- ▶ 베트남 조직, 필로폰, 케타민 등 새로운 마약 출현
- ▶ 도피 중이던 밀수총책 끈질긴 추적으로 출국 전 검거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8월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마약(이하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 지검에 송치(구속 2명, 불구속 1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망타진한 조직이 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각성제), 케타민(마취제), 니트라제팜(진정제)과 전문의약품인 타마돌린(진통제), 아세트아

미노펜(해열제) 등 5종의 성분을 혼합한 새로운 마약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밀수총책 A는 마약류 해외 주문 및 국내 판매, B는 마약 수취목적의 국내 빈집 주소 확보, C는 마약 수거 및 배송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4월 말 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수거책 C를

긴급체포했다. 검거한 C를 통해 주범 A의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던 A를 끈질긴 추적을 통해 해외 도피 직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A의 지시로 경기도 시흥에서 은신 중이던 B까지 검거함으로써 베트남 마약밀수·유통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성분분석 결과,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니트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타마돌린,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전문의약품이 혼합된



신종마약류 [사진 제공=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것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임이 확인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국경을 통과하는 성분 불상 제품에 대해

면밀한 검사·단속과 성분분석을 시행하는 등 마약밀수 차단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양훈 논설위원

인천경제청, 스타트업파크 TRY OUT 실증 프로그램 기업들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 2024년 트라이 아웃(TRY OUT) 공공·민간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40개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트라이 아웃(TRY OUT)'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표 실증 프로그램으로 9개 공공기관, 9개 민간기업, 7개 대학과 협력하여 혁신 스타트업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공항, 항만 등 인천경제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현장 실증(검증)을 통해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현장 실증은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구현해 검증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9개 공공기관이 스타트업 26개사와 협업

혁신 스타트업 날개...9개 공공기관, 9개 민간기업과 협업 40개 혁신 스타트업 현장...2020년 인천 274개사 유망기업

해 공공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실증을 지원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3개사(쉐어피스, 푸르게, 루카스) △인천국제공항공사-3개사(라스트마일, 아이핀랩스, 하이퍼클라우드) △인천항만공사-3개사(피아스페이스, 코멧, 모빅랩) △인천도시공사-3개사(위드라이브, 에코드인, 이엠씨티) △인천관광공사-3개사(유기지능스튜디오, 닥터케이헬스케어, 도깨비) △인천환경공단-2개사(비아이밀리그램, 날다) △인천시설공단-2개사(별따라가자, 비엠씨) △인천유나이티드-4개사(더좋은 운동으로, 비엔씨테크, 유니유니, 애니) △인천교통공사-3

개사(아이캡틴, 디플리, 메테오시물레이션)이다.

민간 실증 프로그램은 △GS칼텍스-1개사(위드피) △포스코인터내셔널-4개사(펜타게이트, 에이버츄얼, 팜프로, 네오스텍) △셀트리온-1개사(퍼스트랩) △삼성바이오로직스-1개사(아이이에스지) △태전그룹-2개사(반달컴퍼니, 펭귄포인트) △LG사이언스파크-1개사(스티아이랩) △SSG 랜더스-2개사(앞스, 애나) 등 총 9개 민간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14개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검증을 지원한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트라이 아웃 현장 실증 프로그램은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도 이를 시험해 볼 수 있

는 현장이나 장비가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지난해까지 274개 기업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었다.

2023년도 공공 실증 참가기업인 펜타게이트의 경우 인천시 연구구청학아파트에 'AI 기술 적용 보행자 인지기능 스마트 안전 보안등'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S인증 1등급 인증 및 KTL시험성적서를 획득 및 조달청 혁신제품 신청과 함께 투자유치 4억 원의 성과를 냈다.

민간 실증 참가기업인 나인와트의 경우도 협력파트너 연계 공장을 대상으로 '전력 데이터기반 에너지 진단 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이

를 통해 솔루션 사용 계약 체결은 물론 20억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2일 인천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우수한 실증제품을 공공구매로 연계하기 위한 '실증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17개사의 우수제품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과 조달청 파트너십데이(공공구매 상담회) 연계를 통한 판로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심순옥 인천경제청 스마트시티과장은 "현장 실증이 스타트업의 기술 보완 및 설치 실적 확보를 통해 조기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증 협력 기관 추가 확보 및 지속적 지원을 통해 IFEZ가 스타트업 실증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미순 기자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 발표

인천시, 여의도 면적 15배, 지적재조사법 시행 2012년 시행 이후 전국 최대규모...지역 부동산

인천광역시시는 8월 29일 자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국제공항지구'의 면적은 4409만㎡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6월 14일 해당지구와 관련하여 중구

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인천공항 디지털 기반 공간 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인천시 전체 필지의 11%에 해당하는 7만 77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원도심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81억 원을 투입해 3만 8000여 필지(54%)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4개의 섬(영종도, 용유도, 신불도, 삼목도)과 바다를 매립해 건설된 인

천공항은 개항(2001년) 이후 공항 주변 개발과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1~4단계)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유지였던 기존 섬 지역의 소유권 취득이 지연되고, 매립지에 대한 신규등록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적 불부합 문제가 누적되어 공항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중구청은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및 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인천국제공항 지적재조사지구 [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디지털 지적 정보를 바탕으로 △공항시설 행정 간소화 △공항부지의 효율적 활용 △스마트 공항 운영 △공항경제권 개발 지원 등의 효과

가 기대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으로 인천공항의 방대한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순 기자